

애류(崖溜) 권덕규(權惠奎)의 상고 조선 인식

李 浣 榮

<차 례>

- I. 머리말
- II. 애류에 관한 기존선행연구
- III. 애류의 상고 조선사 인식
- IV. 맺음말

【국문초록】

애류(崖溜) 권덕규가 살았던 시기는 조선을 무력 지배한 일본제국 주의와의 본격적인 항쟁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식민지신민사관 교육을 시작하였는데 그 중심에 조선 역사교육이 있었다. 일본제국주의 신민으로서 알아야 할 조선의 역사를 주입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독립운동가들과 문화사학자들은 조선인의 주체적인 역사를 기술한 역사서와 각 종 잡지를 계속 저술하여 조선인의 주체의식과 광복에 대한 의식을 계속 불러일으켰다. 애류는 독립운동가로서, 국어학자, 역사학자로서 많은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특히 그는 『조선유기(朝鮮留記)』와 『조선유기략(朝鮮留記略)』, 『조선사(朝鮮史)』를 통해 조선의 주체적 역사관을 주장하였다. 한국사의 시작을 환족(桓族)인 환웅의 신시의 역사로

* 인하대학교 융학교고학 통합과정

부터 시작되어 여러 환웅에 의해 오랜 세월 이어졌으며 이 역사는 단군조선으로 계승되었음을 기술하였다. 또한 누 천 년의 단군조선은 부여로 전통성이 계승되었음을 기술하여 ‘신시-단군조선-부여’로 이어지는 한국 상고사의 맥을 정립하였다. 광복 후 저술한 『조선사』는 당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역사서로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보편적 역사관을 보급하여 대중화한 것이기에 그의 업적을 주목할 만하다. 현재 한국 상고사학은 위기에 놓여있다. 중국 속국으로 시작된 한국사로 기술한 동북공정 논리에 일체 대응하지 못하는 불구자 사관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기에 신시의 역사로 시작되어 단군조선으로 계승되었음을 기술한 애류의 상고 조선에 대한 인식은 주변국의 역사침탈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사관으로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권덕규, 조선유기, 조선사, 신시사관, 단군사관

I. 머리말

애류(崖溜) 권덕규(1891~1950)는 대일항쟁기 역사가의 한 사람이며 국어학자이며 종교인, 수필가로 만담을 즐겨했고 한 편으로는 술을 좋아한 기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활동할 시기인 1920년대는 하라 다카시(原敬)가 수상으로 취임하여 이른바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의 시대¹⁾라 평가 받고 있다. 이 시기는 일본제국이 조선인들에

1) 다이쇼[大正]는 일본 제123대 일왕 요시히토(嘉仁, 1879~1926)의 연호이다. 1912년부터 1926년까지 사용한 연호로 이 기간 전후로 일본에서는 정당 정치가 확립되고, 자본의 자립과 남녀 평등과 노동자의 단결권 요구 등 민주주의 풍토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노부 세이사부(信夫清三郎)의 다이쇼 데모크라시사』(1954)에서 제목으로 등장하여 학술 용어로 정착되었다.

대한 통치방식을 ‘무단통치’에서 ‘문화정책’으로 전환하며 조선인의 역사인식 분열을 통해 효율적 지배를 꾀하고자 하던 때로 1919년 3.1혁명은 이러한 시책시행을 더욱 강하게 촉발시켰다. 급기야 1920년, 조선총독부는 본격적으로 조선인들에게 역사교육을 시행하며 신민사상 강화에 치중하기 위해 조선사 교재인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 아동용(尋常小學國史補充教材 兒童用)』과 이에 대한 교육 지침이 명기되어 있는 『심상소학일본역사 보충교재 교수참고서(尋常小學日本歷史補充教材教授參考書)』교육을 전격 시행하였다. 이 교재의 핵심은 단군은 전설이기에 기술하지 않았고²⁾ 조선인의 고대역사는 한반도 북부의 위만조선과 낙랑군의 420년간 지나의 속국으로³⁾, 한반도 남부는 고구려에 꺾박받는 한(韓)족이 고대 왜의 도움으로 유지하였고 임나가 중심이 되어 200년 간 지배한 왜의 속국으로⁴⁾⁵⁾ 출발한 나

2) 『심상소학일본역사 보충교재 교수참고서』 상고(上古) 시대의 조선반도.

단군(檀君) 전설 “이 책에서는 이 전설을 본문 내용에 채택하지 않았으며, 참고로 이 비고 부분에 부기(附記)한다.(因つて本書は該傳説を採らず、參考として此處に附記す)”
3) 위의 책. 교수요지(教授要旨)

“본 과(課)에서 조선반도의 연혁은 북부와 남부가 크게 다르다. 북부는 예로부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통치했으며, 따라서 중국의 속국(屬國) 또는 영토였다는 사실을, 남부는 곧 조선인의 조상인 한족(韓族)의 거주지로서, 이 지방은 일찍부터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本課に於ては朝鮮半島の沿革は北部と南部とにより大いに其の趣を異にし、北部は古來支那より入り來りたるもの之が統治をなし、從つて支那の屬國又は領土となりたるでと、南部は即ち朝鮮人の祖先たる韓種族の住地にして、此の地方は早くより日本と密接の關係ありしてとを教ふべし)”

4) 위의 책. 일본부(日本府) 1

“본과에서는 일본부(日本府)를 중심으로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이 균형을 이루어 정립(鼎立)하고 있던 시대의 상황을 가르치며, 북쪽에서 일어난 고구려에 맞서, 한족(韓族)의 여러 나라들이 일본의 힘으로 그 국가를 보전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本課に於ては、日本府を中心として新羅・高句麗・百濟三國鼎立時代の有様を教へ、北方より起りたる高句麗に對し、韓種族の諸國が日本の力によりて其の國家を保全するを得たる

라라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광복 직전까지 진행되었다.

| 제1차 조선교육령 시기 |
|--|
| <尋常小學國史補充教材 卷一 兒童用>(1920년 12월) <尋常小學國史補充教材 卷二 兒童用>(1920년 12월) |
|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 |
| <朝鮮事歷補充教材>(1922년 3월) <普通學校國史 上卷 兒童用>(1922년 12월) <普通學校國史 下卷 兒童用>(1922년 12월) <普通學校國史 卷一>(1932년 3월) <普通學校國史 卷二>(1932년 3월) |
| 제3차(·4차)조선교육령 시기 |
| <初等國史 卷一>(1937년 3월 改訂 趙範) * 1932년 판 <普通學校國史>을 개정 <初等國史 卷二>(1938년 2월) <初等國史 第五學年>(1940년 3월) <初等國史 第六學年>(1944년 3월 趙範) <初等國史 第六學年>(1944년 3월) |

△그림1. 『제 2기 한일역사 공동연구 보고서』 제6권의 시기별 조선교육령⁶⁾

해당 서적의 내용을 본다면 조선 강제 병합이전에 일본역사학계에

とを知らしむべし)”

5) 『심상소학일본역사 보충교재 교수참고서 아동용』 1. 임나(任那)와 가라(加羅)의 국명(國名)

“이 나라는 옛날에 경상도 김해(金海)에 있던 가라국(加羅國)과 동일하며, 일본의 고서에 나오는 의부가라(意富加羅)가 곧 이것이다. 가라(加羅) 즉 임나(任那)는 먼 옛날부터 일본에 조공을 바쳤으며, 일본이 삼한과 교류하는 문호로서, 일본에서는 항상 조선반도의 남부에 있는 가라 등 여러 나라들을 총칭하여 임나라고 부르게 되었다. 따라서 옛날부터 임나에는 광의(廣義)와 협의(狹義)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본서에서는 김해에 있던 나라를 가라(加羅)라고 이르고, 임나는 넓은 의미에서 임나 제국들을 이를 때에 한하여 사용한다.(此の國は古、慶尙南道金海に在りたる加羅國と同一にして、日本の古書に意富加羅とわるもの即ち是なり、加羅即ち任用は最も古くより日本に朝貢し、日本より三韓に交通する門戸に當るを以て、日本にてはいつしか朝鮮半島の南部に在りし加羅等の諸國、を總稱して任那といふに至れり。故に古來任那には廣狹二様の義ありと知るべし。本書にては金海に在りし國を加羅と呼び、任那は廣き意味にて任那諸國などいへる時に限り用ふ)

6) 이 내용은 제6권 나가시마 히로키(永島廣紀)가 작성한 ‘朝鮮總督府 學務局의 역사 교과서 편찬과 ‘國史·朝鮮史’ 교육’편에 기록되어 있다.

서 이미 정형화 시킨 조선역사 틀을 조선인들에게 본격 교육시킴으로서 조선인들의 주체적인 역사관이 아닌 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사관을 주입하여 민족운동을 사전 차단코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당시 조선의 여러 사상가들과 독립운동가들은 올바른 조선 역사 교육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규합을 시도하였다.

본고는 그러한 인물 중에 기존연구가 부족했던 애류 권덕규를 주목하였다. 항일운동의 선봉이었던 대종교의 사관뿐만 아니라 당시 보편적인 여러 독립운동가와 문화사학의 사상가들이 주장한 한국사가 그의 저서와 주장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애류의 저서인 『조선유기』⁷⁾와 이를 축약하고 보완한 『조선유기략』⁸⁾, 광복 후 이를 바탕으로 수정 출간하여 국민적 주목을 받았던 『조선사』⁹⁾에서 상고 조선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당시 한국인들에게 면면히 전해져온 보편적 고대 한국사관의 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애류에 대한 기존선행연구

기존 애류(崖溜)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자로서와 국어학자로서 두 가지 측면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그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국어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는 조선광문회 『말모이』 편찬에 참여한 김두봉, 이규영과 함께 주시경의 대표적인 제자이다.¹⁰⁾

7) 조선유기(上)은 1924년에, 조선유기(中)은 1926년에 간행되었다.

8) 1929년에 조선유기 상·하를 축약하여 간행하였다. 조선유기의 내용 중에 조선유기략에서 생략된 주요 부분은 내용의 요약의 성격도 있으나 상세부분이 삭제된 것은 당시 조선총독부의 영향으로 보인다.

9) 조선사는 조선유기와 조선유기략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1945년 간행하였는데 장도빈의 朝鮮歷史 大全, 황의돈의 中等朝鮮歷史와 함께 학교 교재의 참고서로 지정되었다. 또한 1998년 한국출판연구소가 ‘건국이후 베스트셀러 50선’에서 1950년의 베스트셀러로 뽑혔을 만큼 당시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역사서로 평가된다.

또한 애류는 단군정신 중심의 독립운동가로서 알려져 있다.¹¹⁾ 그는 주시경·이상설·김정규·이범윤·홍범도·이회영·김동삼·이상룡·유인식·남형우·나운규·안창남 등의 인물들과 대종교에 입교하여 단군정신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¹²⁾ 애류라는 호외에 ‘환민(桓民)한별’이란 호를 사용하였고 그의 역사서에서 “환(桓)”을 강조한 것을 보면 한민족의 역사정신이 ‘광명’이었음을 일찍이 간파하였을 알 수 있다. 그의 저서에서 볼 수 있던 일본 제국주의에게 국권을 빼앗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고대 환(桓)민족의 위대성을 자각시키고 그 의식을 부활시키고자 노력한 학자였다.¹³⁾ 지금 한국인들이 누구나 한번은 꼭 찾고자 하는 민족 영산 백두산도 1908년 신채호가 독산신문에서 태백산이 묘향산이 아닌 백두산임을 강조되면서 단군의 탄강지로 대중들에게 인식을 확산시킨 인물 중 한 사람이 애류이다.¹⁴⁾ 또한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기술된 여러 한국통사에 기술된 실학의 지식사에서 애류는 조선유기에서 오늘날 실학자로 분류되는 학자들¹⁵⁾을 처음 소개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¹⁶⁾

10) 김해금, 『권덕규 선생의 학문적 계보』 (애산학보 42, 2016), 72쪽.

11) 정민지는 권덕규의 조선사에서 나타난 한국사 인식에서 애류는 단군민족주의, 고대문자기원설, 문화민족주의를 주장한 민족주의 사관의 학자로 평가하였다.

12) 김동환, 『단군을 배경으로 한 독립운동가』 - 경상도,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 (仙道文化, 2011), 132쪽.

13) 허재영, 『애류 권덕규의 사상과 어문 운동』 (애산학보 42, 2016), 114쪽.

14) 박찬승, 『백두산의 ‘민족 영산’으로의 표상화』 (동아시아 문화연구 55, 2013), 10쪽.

15) 애류는 조선유기 3편 영·정조의 치와 학자의 배출관련 기술에서 이익과 이상정, 신경준, 정약용, 안정복, 이회령, 한치윤, 이공익, 홍대용, 박지원, 이덕무, 홍계희, 박성원, 황윤석, 이언진, 윤행임, 이광사, 김홍도, 강명길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한 그는 사찬저술에 대해 논하면서 유계, 오유, 임삼덕, 신경준, 안정복, 이회령, 이익, 유헌원, 이구경, 서유계, 김정호, 최한기 등의 저술을 소개했는데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실학자로 평가받은 인물들이다.

16) 노관범, 「한국통사로 보는 실학의 지식사 시론」 (한국문화 0.88, 2016), 222

Ⅲ. 애류의 상고 조선사 인식

1. 저술시기의 시대 상황

애류의 『조선유기(朝鮮留記)』가 세상에 출현 할 때의 전후 상황을 살펴보자. 조선총독부는 조선을 강제병합하면서 조선의 역사와 문화 서적에 대해 총독부 명의로 대대적인 압수를 실시했다. 명분은 ‘시의에 부적(不適)한 서적’이란 이유였다. 주로 조선의 역사서와 자유, 평등, 독립 등의 사상이 들어 있는 서적류이다. 조선총독부관보에 기재된 압수 서적¹⁷⁾ 중 대한제국 시기에 출간된 역사관련 교과서가 포함

쪽

17) 관보에 게재된 수거 대상 서적은 『초등대한역사(初等大韓歷史(國文,漢文))』, 『보통교과 동국역사(普通教科東國歷史)』, 『신정동국역사(新訂東國歷史)』, 『대동역사략(大東歷史略)』, 『대한신지지(大韓新地誌)』, 『대한지지(大韓地誌)』, 『최신고등대한지지(最新高等大韓地誌)』, 『문답대한신지지(問答大韓新地誌)』, 『최신대한초등지지(最新初等大韓地誌)』, 『최신초등소학(最新初等小學)』, 『고등소학독본(高等小學讀本)』, 『국문과본』, 『초등소학(初等小學)』,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 『소학한문독본(小學漢文讀本)』, 『여자독본』, 『부유습독(婦幼讀習)』, 『고등소학수신서(高等小學修身書)』, 『초등윤리학교과서(初等倫理學教科書)』, 『중등수신교과서(中等修身教科書)』, 『초등소학수신서(初等小學修身書)』, 『독습일어정칙(獨習日語正則)』, 『정선일어대해(精選日語大海)』, 『실지응용작문법(實地應用作文法)』, 『음빙실문집(飲氷室文集)』, 『국가사상학(國家思想學)』, 『민족경쟁론(民族競爭論)』, 『국가학강령(國家學綱領)』, 『음빙실자유서(飲氷室自由書)』, 『준비시대(준비시대)』, 『국민수지(國民須知)』, 『국민자유진보론(國民自由進步論)』, 『세계삼괴물(世界三怪物)』, 『20세기대참극제국주의(二十世紀大慘劇帝國主義)』, 『강자의 권리경쟁(強者の 權利競爭)』, 『대가론집(大家論集)』, 『청년입지편(青年立志編)』, 『남녀평등권(男女平權論)』, 『편편기담경세가(片片奇談警世歌)』, 『쇼야교육』, 『애국정신(愛國精神)』, 『애국정신담』, 『몽견제갈량(夢見諸葛亮)』, 『을지문덕(乙支文德(漢文))』, 『을지문덕 (국문)』, 『이태리건국삼걸전(伊太利建國三傑傳)』, 『갈소사전(噶蘇士傳)』, 『화성돈전(華盛頓傳)』, 『파란말년전사(波蘭末年戰史)』, 『미국독립사(美國獨立史)』, 『에급근세사(埃及近世史)』 등 51종 서적이다.

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그림 2. 『조선총독부관보』 (1910년(명치 43년) 11월 19일)

총 51종의 압수 서적 중 역사교과서로는 『초등대한역사(初等大韓歷史(國文,漢文))』¹⁸⁾, 『보통교과 동국역사(普通教科東國歷史)』¹⁹⁾, 『신정동국역사(新訂東國歷史)』²⁰⁾, 『대동역사략(大東歷史略)』²¹⁾과 지리서에는 『대한신지지(大韓新地誌)』²²⁾, 『대한지지(大韓地誌)』²³⁾, 『최신고등대한지지(最新高等大韓地誌)』²⁴⁾, 『문답대한신지지(問答

18) 정인호(鄭寅琥)가 편집하고 장세기(張世基)가 교열한 역사서로서 1908년 발간하였는데 단군에서 조선까지 역사를 담고 있고 배일(排日) 사상이 담겨있다.

19) 현채(玄采)가 지었으며 대한제국 학부에서 1899년에 발간하였다. 중학교 교과하였다.

20) 1906년 원영의, 유근이 초등학교의 역사 교육을 위하여 편찬한 교과서로 단군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술하였다.

21) 1906년 초등학교 역사교육을 위해 국민교육회에서 편찬한 교과서로 단군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간단하게 기록한 통사로 왕 중심의 편년체로 서술하였다.

22) 1907년 장지연이 학생들의 지리 교육을 위하여 편찬한 지리교과서. 서문과 책의 곳곳에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3) 1899년 현채가 중학교의 지리 교육을 위하여 편찬한 지리 교과서이다.

大韓新地誌)』²⁵⁾, 『최신대한초등지지(最新初等大韓地誌)』²⁶⁾ 등이다. 주로 단군조선으로부터 시작된 조선의 역사를 담고 있고 관련 영역이 기술된 내용이 주 압수 대상이었다.

과거 1906년 통감부가 대한제국을 실질지배 하면서 조선인에 대해 식민지 교육을 준비해 나가고 있었지만 이미 1895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근대식 학교가 설립되면서 교과서도 당시에 많은 조선의 주체적 역사서가 저술되고 있었다. 『조선역대사략(朝鮮歷代史略)』, 『조선사략십과(朝鮮略史十課)』, 『조선역사(朝鮮歷史)』, 『동국역대사략(東國歷代史略)』, 『대한역대사략(大韓歷代史略)』, 『보통교과 동국역사(普通教科 東國歷史)』 등이 이 시기에 저술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20세기 초에도 역사서 집필이 활성화 되었다. 통감부가 조선의 언론, 특히 역사저술에 관해서는 통제할 수 상황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동역사(大東역사)』, 『역사집략(歷史輯略)』, 『보통교과 대동역사(普通教科 大東歷史略)』, 『신증 동국역사(新訂 東國歷史)』, 『동국사략(東國史略)』, 『초등대동역사(初等大東歷史)』, 『보통교과 대동역사(普通教科 大東歷史略)』, 『초등대한역사(初等大韓歷史)』, 『초등본국역사(初等本國歷史)』, 『초등본국사략(初等本國史略)』 등이 1905년 ~ 1909년 시기에 저술되었다. 독사신문의 본격적인 연재도 이 시기이다.²⁷⁾ 이 시기 조선역사의 기술에 있어 공통점이 있다면 조선사의 시작을 단군조선으로 인식하여 많은 분량의 관련 기록을 기술하였다는 점이다.

24) 1909년 정인호가 편찬한 중학교 지리교과서로 대한전도 및 한양을 비롯한 주요도시의 지도 23개가 수록되었고 동해로 표기하였다.

25) 박문서관 주인이며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노익형이 간행한 지리서이다.

26) 1909년 정인호가 편집한 국한문혼용 지리서이다.

27) 신채호가 서술한 역사서로서 『대한매일신보』에 1908년 8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50회에 걸쳐 연재되었는데 단군조선부터 발해까지의 역사를 다뤘다.

조선의 국권을 빼앗고 강제 점령한 조선총독부 시기로 접어들면서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할 신민 교육을 위해서는 앞서 저술된 역사서, 지리서, 독립정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상서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기에 조선총독부 관보에 게재된 것과 같이 주요 역사서와 사상서를 압수하며 배포를 금지 시켰다. 그리고 1919년 3.1 혁명을 목전에서 경험한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정책을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조선인들이 일본신민으로서 역사의를 갖도록 본격 식민지역사관 교육을 시행하였다. 1920년경부터 조선인 아동들부터 일인(日人)역사가들이 만든 역사교과서인 『심상소학국가보충교재』 교육을 시행하는데 그에 대한 교육지침은 『심상소학일본국가교수참고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또한 1922년 조선총독부는 조선사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도사 편찬사업을 진행하였고 1925년에는 조선사편수회로 조직을 확장하여 많은 인적 구성을 통해 『조선사』 편찬사업에 몰두하였다. 조선총독부의 감시와 견제 속에서도 조선인들의 역사서 저술은 계속되었다. 황의돈의 『대동청사(大東靑史)』²⁸⁾와 신편조선역사(新編朝鮮歷史)²⁹⁾가 경술국치 시기에 출간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안학의 『조선문명사(朝鮮文明史)』³⁰⁾, 장도빈은 1916년 필사본 『국사(國史)』을 수정 보완한 『조선역사요령(朝鮮歷史要領)』, 『조선역사대전(朝鮮歷史大全)』 등을 1923년 간행하였

28) 1910년 중학교 역사교육을 위하여 황의돈이 편찬한 교과서로서 상고 - 중고 - 근고로 시대 구분하여 단군 조선으로부터 영·정조 때까지의 한국사를 서술하였다.

29) 『대동청사』의 시대 구분에서 좀 더 세분화하여 단군조선에서 열국시대까지를 상고, 삼국시대에서 남북조시대까지를 중고, 고려시대를 근고, 조선시대를 근세로 구분하고 대원군 집권 이후를 최근세로 설정하였다.

30) 1923년 출간된 역사서로서 상고시대부터 조선왕조까지 통사형식으로 기술하였으며 조선사와 세계사를 비교분석해서 기술한 방식이 주목 받고 있다.

다.³¹⁾ 특히 상해임시정부 시절 학생들의 국사교과서로 쓰인 『배달죽 역사』의 모본(母本)으로 알려진 교과서 형식으로 저술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사교과서라 평가받는, 1914년에 김교헌이 저술한 『신단민사(神壇民史)』가 처음 간행되었다.

애류도 이 시기에 『조선유기』 상(上)³²⁾을 출간하였고 2년 뒤 1926년에는 『조선유기』 중(中)³³⁾을 간행한다. 그리고 1929년에는 두 가지 서적을 합본한 『조선유기략(朝鮮留記略)』을 출간하였다. 애류가 ‘유기(留記)’³⁴⁾라는 역사서명을 그대로 제목으로 인용한 것은 고구려사 계승의 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³⁵⁾

이후 애류는 대일항쟁기에 출간한 『조선유기』(상)과 『조선유기』(중)을 수정, 보완하여 합본한 『조선사(朝鮮史)』를 1945년에 출간하였다. 앞서 출간한 『조선유기』와의 역사 기술에 있어 차이점이 있다면 상고사에 있어 조선역사의 주체성을 많이 강조되었고 당시까지 전해지는 사료를 더욱 보완하여 양적인 면의 역사교재 성격을 구비하였다는 것이다. 광복 당시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역사서로 평가받는 서적이 이것이다.

2. 『조선유기』와 『조선사』를 통해 살펴 본 애류의 상고 조선사 인식

31) 산운 장도빈(張道斌)은 한국사를 고대(고조선~고려시대), 근세(조선시대), 최근(대원군 집권 이후)으로 삼분하여 저술하였다.

32) 상권은 고대 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다뤘다.

33) 중권은 조선시대 역사를 다뤘다.

34) 『유기』는 고구려 초기에 100권의 책으로 만들어졌다고 전하며 영양왕이 CE 600년에 태학박사 이문진을 통해 이를 정리, 수정하여 5권의 『신집(新集)』을 발간했다.

35) 권덕규 저자(글)·정재승 번역, 『조선유기략』(우리역사연구재단, 2009), 10쪽.

애류의 저서인 『조선유기』와 『조선유기략』 그리고 『조선사』의 시대 구분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조선유기』에서는 ‘상고사(신시시대, 단군시대, 부여시대, 삼국시대(남북조)) - 중고사(고려시대) - 근세사(조선시대)’로 구분했으며 『조선유기략』에서는 ‘상고(신시시대, 단군조선, 부여시대) - 중고(삼국시대 - 남북국시대) - 근고(고려시대) - 근세사(이조시대)’로 분류했다. 광복 시기에 출간한 『조선사』에서는 ‘상고사(신시시대, 단군조선, 부여시대, 삼국시대, 남북조) - 중고사(고려시대) - 근세사(조선시대)’로 분류하였다. 세 판본의 각 시대구분의 차이가 약간 있으나 본고에서는 한국사의 시작점인 ‘상고 조선’ 시대에 대한 애류의 역사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애류의 역사 시대구분은 기존 연구에서 대중교인으로서 사관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많이 논의 되었는데 특히 김교헌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되어 왔다. 김교헌이 저술한 『신단실기(神壇實記)』와의 예를 든다면 신단실기에는 삼신을 환인, 환웅, 단군으로 환검인 환웅이 천부인을 가지고 태백산에 내려와 신교로서 교민하고 신시를 열었다. 무진년에 신인임검 단군이 국호를 단(檀)으로 하여 비서갑 하백녀와 결혼하여 태자 부루를 낳았고 팽우로 하여금 홍수를 다스리게 하고 평양으로 도읍을 옮겨 국호를 조선이라 하였고 태자부루를 도산회의 보냈다는 등의 여러 역사적 내용을 기술하였는데³⁶⁾ 애류는 이러한 내용에 더욱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조선의 역사시작을 환웅의 신시로 기술하면서 오랜 역사 속에 여러 환웅이 통치했으며 단군조선 시기도 여러 단군이 통치한 시기로 기술하였다.

『조선유기』와 『조선사』에 기록된 내용을 본다면 애류는 당시까지 존재하였던 광범위한 사료들을 취합, 분석하여 통사적인 성격의

36) 김교헌, 『신단실기』 단군세기(대종교본부, 1914), 1쪽.

역사서를 편찬하고자 하는 점에서 대중교 사관의 역사관과는 미세한 차이점도 발견된다. 이제 사료 기록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보다 더 세세히 그의 상고 조선에 대한 인식을 논해 보고자 한다.

1) 조선시대(朝鮮時代)의 범주 설정

애류의 연구자들은 그가 고조선을 한국사의 시작으로 기술했다고 하나 그의 저작물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그가 인식한 조선은 지금의 고조선, 단군조선, 위만조선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조선역사의 시작을 환웅의 신시로 설정하였다.³⁷⁾ 이 신시를 계승한 단군조선까지의 역사를 조선의 범주로 보았다.

| 현 사학계의 고조선 역사범주 | 애류의 조선 역사범주 |
|------------------------------|-------------|
| (단군조선) ³⁸⁾ , 위만조선 | 신시, 단군조선 |

△현 사학계와 애류의 고조선 역사범주 비교

이러한 예는 이미 『삼국유사』의 고조선편에 있다. 저자는 기이편에서 고조선과 위만조선을 분리해서 기술하였고 고조선에서는 고조선 왕검조선편에서 단군조선의 기원을 환국(인)에서 분가해서 신시를 개창한 환웅의 역사와 이를 계승한 조선을 고조선의 범주로 묶어 기술하였다.

이는 현재의 이성계의 조선과 대비하여 단군의 조선을 고조선이

37) 권덕규 저자(글) · 정재승 번역, 『조선유기략』 (우리역사연구재단, 2009), 28쪽.

38) ()로 처리한 이유는 최근 단군조선의 건국과 실존을 부정하는 일부학자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시각과는 다른 것으로, 『삼국유사』 집필시기는 고려로서 이성계의 조선이 개국되기 오래 전이다. 그렇기에 일연의 시각은 단군조선 건국이전의 ‘환국으로부터 분가하여 개창한 환웅의 신시’까지가 단군조선의 이전인 고(古)조선이라는 개념이다. 또한 위만조선과 대비하여 본다면 위만조선이전의 ‘환국(인) – 신시 – 단군조선’이 고(古)조선이란 개념이다. 이러한 역사적 시각을 애류도 그대로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의 이러한 시각으로 고조선을 접근한 연구 결과도 있다.³⁹⁾

| 고조선 | 위만조선 |
|--------------------------------|-----------|
| 환국(인)으로부터 독립한 환웅의 신시 – 단군조선 | 위만과 손자 우거 |

△삼국유사의 조선시대 구분

이러한 환국(인)과 신시를 단군조선의 기원으로 하는 상고사 인식은 일연의 『삼국유사』⁴⁰⁾와 이승휴의 『제왕운기』⁴¹⁾, 행촌 이암의 『단군세기』⁴²⁾, 조선시대 권근의 『응제시주(應製詩主)

39) 임재해의 연구논문이 있다. 「단군신화로 본 고조선 문화의 기원 재인식」, (고조선단군학 19, 2008) ; 「고조선'조와 '전조선'기로 본 고조선의 역사적 실체 재인식」, (고조선단군학 26, 2012) ; 「신시본풀이'로 본 고조선문화의 형성과 흥산문화」, (고조선단군학 20, 2009)

40) 『三國遺事』紀異第一 古朝鮮王儉朝鮮 “古記云 昔有桓國(謂帝釋也) 庶子桓雄(중략)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41) 『帝王韻紀』下, 「東國君王開國年代」 前朝鮮紀 “本紀曰. 上帝桓因, 有庶子曰雄, 云云. 謂曰, 下至三危太白, 弘益人間敷. 故雄受天符印三個, 率鬼三千, 而降太白山頂神檀樹下, 是謂檀雄天王也, 云云. 令孫女, 飲藥成人身, 與檀樹神, 婚而生男, 名檀君. 據朝鮮之域爲王, 故尸羅・高禮・南北沃沮・東北扶餘・穢與貊, 皆檀君之壽也.”

42) 47대 단군역년과 업적을 수록하였다.

), 43), 허미수의 『동사』 44), 북애자의 『규원사화』 45), 이맥의 『태백일사』 46), 정황의 『유헌집』 47), 유희령의 『표제음주동국사략』 48), 이행의 『신증동국여지승람』 49), 권문해의 『대동운부군옥』 50), 남구만의 『약천집』 51), 홍만종의 『해동이적』 52), 이종휘의 『수산집』 53), 유광익의 『풍암집화』 54), 이복휴의 『해동악부』 55), 홍경모의 『관암전서』 56) 등에 기술되어 면면히 전해진 보편적 역사 인식이다.

2) 신시조선의 역사기술

애류는 신시의 역사를 기술함에 『삼국유사』에 기록된 내용을

43) 『應製詩註』 始古開闢東夷主“昔神人降檀木下 國人立以爲主 因號檀君 時唐堯元年戊辰也.”

44) 『東事』 檀君世家 “上古九夷之初, 有桓因氏, 桓因生神市, 始教生民之治, 民歸之. 神市生檀君, 居檀樹下, 號曰檀君, 始有國號曰朝鮮. 朝鮮者, 東表日出之名.”

45) 『揆園史話』 “神市氏 寔爲東方人類之祖 (중략) 盖檀君以前 首出之聖人也”

46) 『桓國本紀』, 『神市本紀』, 『三韓官境本紀』를 통해 환국- 신시- 단군조선 계승맥이 기술되어 있다.

47) 『游軒集』 “榻塵三紀厚 邦本一旒垂 豈意齊桓國”

48) 『標題音註東國史略』 “檀君 姓桓氏 名 王儉 (중략) 謂之神市 在生理化”

49) 『新增東國輿地勝覽』 “古記 昔有天神桓因 名庶子雄 (중략) 謂之神市”

50) 『大東韻府群玉』 “昔有神人桓因 名世子桓雄 (중략) 謂之神市”

51) 『樂泉集』 29, 東史辨證, 檀君. “今考三國遺事載古記之說 云昔有桓國帝釋庶子桓雄 受天符印三箇”

52) 『海東異蹟』 “云昔有桓國帝釋 庶子桓雄受天符印三箇 率徒三千降太伯山頂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중략) 雄乃假化而婚之 生子曰壇君 以唐堯庚寅歲都平壤 御國一千五百年”

53) 『修山集』 12, 神事志. “朝鮮之初 有桓國帝釋庶子桓雄 受天符三印 與其徒三千 降于太白之山上 有神壇 (중략) 及檀君之立”

54) 『楓巖輯話』 권1, 檀君史紀辨疑. “今考三國遺事載古記之說云 昔有桓國帝釋庶子桓雄 受天符印三箇”

55) 『海東樂府』 권1, 桓雄詞. “古記云 昔桓國君庶子雄”

56) 『冠巖全書』 19, 三聖祠記. “朝鮮之初 有桓國帝釋 庶子桓雄 受天符三印”

언급하며 환웅의 교화를 통해 문명이 진보하였음을 기록하였다.

『조선유기』에서는 신시를 건국한 일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해 놓았는데 5천년 전후에 자신들의 조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임을 믿는 환(桓)이란 일족이 환웅이라는 천왕을 받들고(戴) 태백산하에 도읍을 정하여(奠) 신시(神市) 칭하였다고 하였다. 역대의 천왕이 천제자(天帝子)임을 칭하며 천부인 3개를 지니고 이화하였다고 기술하여 신시의 환웅천왕이 신시시대 여러 명이 계계승승 이어졌고 그들은 천손민족의 천제자(天帝子)라고 기록하였다. 인간을 홍익하는 주의로 백성을 다스렸는데 『조선유기』와 『조선사』에서는 편발개수(編髮盖首)⁵⁷⁾의 제도와 군신, 남녀의 구분과 의복과 음식과 궁실의 구분을 정하여 교화하여 미개의 부족(部屬)이 사망에서 환웅에게 귀의해 문명에 동화되었다고 기록하였다.

또한 서쪽 조선(靑丘)의 사람이 중원의 한족(漢族)과의 시비를 겨루며 자주 황하 북쪽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내용을 『조선유기』에서 기록하였는데⁵⁸⁾ 이를 광복 시기 출간한 『조선사』에서는 이 신시 시기의 우리역사 인물이 치우(蚩尤)임을 기록하였다.⁵⁹⁾ 치우가 한민족으로서 신시시대의 영웅임을 기술한 것이다. 신시의 역사는 단순한 환웅과 아들 단군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아닌 누 백, 누천년의 장구한 역년의 역사이며 최후의 환웅천왕은 인근 여러 민족을 거느려 후에 단국군(壇國君)⁶⁰⁾이 되었다고 기

57) 편발개수는 『정조실록』에 승지 서형수(徐澄修)가 정조에게 단군릉에 대해 아뢰는 내용에 등장하고 있다. “檀君, 卽我東首出之聖 史稱編髮蓋首之制”

58) 권덕규 저자(글) · 정재승 번역, 『조선유기략』 (우리역사연구재단, 2009), 29쪽.

59) 『조선사』, 3쪽 “오족 말엽의 치우의 사적이 幸傳할 뿐이라”

60) 『삼국유사』에는 제단 단(壇)자로, 이승휴 『제왕운기』에는 박달나무 단(檀)

술하였다. 그는 조선사의 시작점을 환웅의 배달 신시임을 밝히고
누 천 년의 역사 후에 단군조선으로 국통이 계승됨을 천명하였다.
『조선유기략』에서는 단국군과 치우에 대한 기록은 없다.

3) 조선의 영역

그는 『조선유기』에서 조선의 지리를 논하면서 동으로는 대해(大海), 남으로는 제주도(耽羅), 북은 흑수(흑룡강), 서는 금하림(金阿林, 홍안령) 넘어 사막(沙漠) 그리고 남으로 황하근방에 위치하였으며 그 중앙이 태백산(백두산)과 송화강 연안이라 하였다.⁶¹⁾ 당시 조선사람은 큰 세력으로 밖으로 퍼져 북으로 흑수 북쪽 5만 여리 땅에 비리, 양운, 구막한, 일군들의 나라를 열었으며 중원으로는 중국산둥반도로부터 이남 지역에는 단기 12세기 중에 내지로 들어가 淮(회수)와 岱(태산) 사이를 차지하여 淮(회이)와 徐(서이) 양국으로 나뉘어 漢族과 다투었다고 기술하였다. 5만 리와 비리국, 양운국, 구막한국, 일군국에 대한 기록은 원동중의 『삼성기전』 하와 『태백일사』 「한국본기」 그리고 『진서』에 등장하는 기록이다. 『삼성기전』 하에는 “파내류산 아래에 환인씨의 나라가 있으니 천해의 동쪽 땅을 또한 파내류국이라 한다. 그 땅의 넓이는 남북으로 5만 리요, 동서로 2만여 리이니 통틀어 한국이라 하였다.”⁶²⁾고 하였고 『태백일사』 「한국본기」에는 “나

누어 말하면, 비리국, 양운국, 구막한국, 구다천국, 일군국, 우루국(일명 비나국), 객현한국, 구모액국, 매구여국(일명 직구다국), 사납아국, 선비이국(일명 시위국 또는 통고사국), 수밀이국이니 합하면 열두 나라이다.”⁶³⁾라고 기록하고 있다. 『진서(晉書)』 「사이전(四夷傳)」에도 비슷한 기록이 전한다.⁶⁴⁾ 애류의 이러한 고대 국가가 조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개척한 국가로 설명하였다. 특이한 것은 이 당시의 바다 건너 고대일본열도와 관련된 역사를 기술하였는데 단기 20세기 남쪽으로 왜에 들어간 자는 축자로부터 출운을 거쳐 점점 북으로 나가며 기술 전파. 이들을 거느려 다스리는 중주의 땅은 이토(怡土, 후쿠오카시(복강시)) 서쪽 그 곳 사람들도 변한 갯가에 와서 장사를 한 듯 하다하여 조선의 문화가 일본열도까지 확대되었다고 하였다.

4) 조선사람 환족(桓族)

『조선유기』에서는 조선의 영역은 하늘(天)이 그어 인종을 조산(祖產)하였는데 인류 6대 문명개창자의 하나로서 환(桓)곳 천족으로 통구스(통사구)족이라고 하였고 궁대인(弓大人)을 의미한다고 적고 있다. 또한 이 환족은 태백산하 송화강 주변을 따라 크게 늘어났는데 5, 6천 년 전의 시대로 유목에서 경작으로 족장 정치 조직이 나오고 산과 물을 따라 3천 단부(團部)가 생겼다고

자는 사용하였는데 애류는 단(壇)을 사용하였다. 단국군이란 용어는 어윤적은 『동사년표(東史年表)』에 등장하는데 어윤적은 단(檀)이라고 표기했다.

61) 『조선유기』와 『조선사』에서 공통으로 기술된 내용이다. 『조선유기략』에는 조선의 지리를 조선과 만주로 기술하며 조선의 북관은 태백산 북쪽 송화강 언저리로 기술하였다.

62) 『三聖記全』 下 “古記云 波奈留之山下 有桓仁氏之國 天海以東之地 亦稱波 奈留之國 其地廣 南北五萬里 東西二萬餘里 摠言桓國.”

63) 『太白逸事』 「桓國本記」 “分言則卑離國 養雲國 寇莫汗國 勾茶川國 一群國 虞婁國 一云 卑那國 客賢汗國 勾牟額國 賣勾餘國 一云 稷白多國 斯納阿國 鮮卑爾國 一云 豕韋國 一云 通古斯國 須密爾國 合十二國 是也.”

64) 『晉書』 「四夷傳」 “裨離國在肅慎西北 馬行可二百日 領戶二萬 養雲國去裨離馬行又五十日 領戶二萬 寇莫汗國去養雲國又百日行 領戶五萬餘 一群國去莫汗又百五十日計去肅慎五萬餘里.”

기술하였다. 이러한 기술은 『조선유기략』에서 축소되어 기술⁶⁵⁾되었다가 광복 시기의 『조선사』에는 조선유기 내용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영역이 축소되어 기술된 경향이 당시의 조선총독부의 감시와 압력 하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인지는 연구가 필요하다.

5) 단군조선역사

애류는 『조선유기』와 『조선유기략』, 『조선사』에서 단군조선 시대에 세세히 논해 놓았다. 특히 단군에 대해서는 단순한 현 한국사에서 주장하는 1명의 단군이야기가 아닌 “단군의 명(名)은 실로 일세일인(一世一人) 전명(傳名)이 아니라 역대 넘점의 총명(總名)이라”⁶⁶⁾이라 하였다. 일세(一世) 단군이 신덕으로 인민을 다스렸는데 서울을 백산(白山)으로 정하여 국호를 단(檀)이라고 하였고 단군 즉위 원년은 지금부터 4261년 전인 무진년(戊辰歲)라고 기록하고 있다. 자손이 세습하였는데 역년은 1500년 이상으로 1세단군은 지나당요(支那唐堯)와 병립하였다고 하였다. 애류의 단군조선에 대한 기록은 당시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 각종 사서를 취합한 결과로 보아 대단히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유기략』과 『조선사』에는 단군기원 50년(BCE 2283)에 시위(洪水)가 덮친 사건을 언급하며 알안불 국상(國相)⁶⁷⁾ 팽우(彭虞)를 시켜 물을 다스려 흑수(흑룡강)으로부터 남으로 우수

(牛首)에 까지 백성 살기에 편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단군조선시기 홍수와 팽우에 관한 기록은 조선시대와 대한제국 시기 사서의 단군조선 부분에 대부분 등장하고 있다. 또 요임금 나라 당(唐)이 조선 서쪽에 유(幽)⁶⁸⁾와 영(營)⁶⁹⁾ 두 고을을 둔다고 하여⁷⁰⁾ 조선조정이 불가하여 단기 67년, 당요(唐堯) 91년 갑술년에 태자(太子) 부루(扶婁)를 보내 도산(塗山)에서 당의 수규(首規) 하우(夏禹)와 지경(地境)을 정하여 이주(二州)가 조선에 속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단군조선시기의 유주와 영주에 관한 기록은 단군세기 2세 부루조 기록에서 볼 수 있다. 우순(虞舜)이 동이 구족 가운데 산동성에서 발원하여 하북성에 걸쳐 존재했던 남(藍)씨가 세운 남국근처에 유주와 영주를 설치하자 부루단군이 군사를 보내서 정벌하고 동무(東武)와 도라(道羅)를 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⁷¹⁾ 시기는 단기 94년 기록으로 되어 있어 애류의 기록과는 차이가 있다. 규원사화에는 관련 기록을 부루단군 34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를 볼진대 시기의 차이는 있다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애류 당시의 여러 사서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나(支那)와의 역사기술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夏)나라 시기관련 기술도 있는데 단기 567년 하나라 걸왕(桀王) 52년 갑오에 하(夏)와 은(殷)이 싸울 때 하걸이 조선의 구원으로 싸움을 이기게 되었다고 『조선유기략』에는 기술하였는데 조선사에서는 더욱 구체

65) 『조선유기략』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들로 한(漢)의 사람들이 대인, 군자라 일컬으며 활을 잘 쏘는 동방사람들이 하여 이(夷)라고 일컫기도 하였다’고 기술하였다.

66) 『조선유기』 상(上)과 『조선유기략』에서는 “대대로 넘점이 단군”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67) 『조선사』에는 ‘首揆(수궐) 팽우’라고 기록하고 있다.

68) 『조선유기』에는 요서라고 주를 달았으며 『조선유기략』에서는 句麗河 곧 遼河 서쪽, 廣寧以西라 주를 달았다.

69) 『조선유기』에서는 요동이라고 하였으며 『조선유기략』에서는 廣寧 以東라 주를 달았다.

70) 『조선사』에서는 순이 요를 당요에게 선양받아 섭정할 때 幽(요서 광령이서)營(요동) 이주(二州)를 설치하려 했다고 기술했다.

71) 『檀君世紀』 “初虞舜置幽營二州於藍國之隣帝遣兵征之盡逐其君封東武道羅等以表其功”

적으로 지나의 은탕(殷湯)이 하(夏)를 칠 때 하결(夏桀)이 구원을 청하여 단군 벌음(伐音)께서 용가말량(龍加末良)을 시켜 구군(九軍)의 사(師)로서 길을 구원, 탕이 사죄하고 구군의 중에서 건이(畎夷)는 회군하지 않고 관중(關中) 분지의 땅을 차지했다고 하여 하나라와 은나라교체시기에 단군조선이 관여한 사건을 기록하였다. 벌음과 말량(末良) 기록은 『규원사화』 15세 벌음단군조에 등장한다. 하왕(夏王)이 사신을 보내와 도와줄 것을 요청해서 군사를 보내 구해주었는데 그 후 다시 하왕이 또다시 군사요청을 했을 때 벌음단군께서 무도함을 꾸짖고 허락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건이(畎夷)는 회군하지 않고 관중(關中) 분지의 땅을 차지했다”고 하였는데 이 기록은 『단군세기』 13세 흘달단군조 재위 16년(BCE 1767)기록에 등장하는 것으로 중원에서 탕(湯)의 공격을 감당 못한 하나라 마지막 걸왕이 구원을 요청하자 읍차 말량을 보내 전투를 도와 주었는데 탕이 사죄하였고 이후 걸왕이 흘달단군의 명을 어기고 군사를 회군하지 않아 단군께서 은나라 사람들과 길을 치고 신지(臣智) 우량(于亮)을 보내 건군(畎軍)을 이끌고 관중의 빈(邢), 기(岐) 땅을 점령하여 주둔시키고 관제를 설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⁷²⁾ 상기 두 문헌의 기록을 통해 본다면 당시 애류는 『규원사화』와 『단군세기』를 참고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유기략』에서는 BCE 202년 한초(漢初) 4년 한왕 유방이 서초왕 항우와 싸울 때 맥국에 구원을 청하거늘 용맹하고 날랜 기병 1만 명 보내어 항우를 쳐서 쫓았고 BCE 217년 예인(濊人, 창해사람) 여도령이 진시황

을 추격한 일도 있다고 기록하여 중원의 역사와 연결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애류가 단군조선 역사복원에 열심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관련 사적 연구를 통해 단군의 신하 왕조명과 왕해월, 왕명지, 왕 흘 등의 존재를 처음으로 발굴한 사례이다.⁷³⁾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들 존재가 거론되어 있는 사료출처를 남겼다면 후인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여러 단군이 다스리는 동안 서울을 아사달 혹은 장당경으로 옮겼고 그 해수는 1048년이며 단군 기원전까지 합해 1500년이나 되는데 사기에 어국(御國) 1500년이 이것이며 왕검성과 장당경, 혈구(강화)에 유적이 있다고 하였다. 최후의 단군은 북천(北遷)하여 부여조(夫餘朝)를 열었다고 하여 신시와 단군조선의 국통이 부여로 계승되었음을 명시하였다. 애류는 환족의 갈래를 논하면서 송하강 동북에 식(숙)신, 토문강 골짜기에 옥저, 요야(遼野)남북에는 예(남쪽에는 濊)와 맥(서남에는 貊), 요서에는 고죽, 남(南)의 반도에는 한(韓), 항산(恒山) 남북 한족(漢族)과 잡처(雜處)한 예(羿), 건(畎), 방(方), 남(藍) 등이 있었으며 발해연안에 청구(靑丘), 주두(周頭)와 산동반도와 해상에 도이(鳥夷), 래이(萊夷), 우이(隅夷) 등 무용(武勇)이 있는 여러 환족의 갈래를 기술하였다.⁷⁴⁾

6) 조선의 문화

조선에는 하늘과 조상을 받드는 성령(종교)이 있으니 신교로 해

72) 『檀君世紀』 “是歲冬殷人伐夏其主桀請援帝以邑借末良率九桓之師以助戰事湯遣使謝罪乃命引還桀遣之遣兵遮路欲敗禁盟遂與殷人伐桀密遣臣智于亮率畎軍合與樂浪進據關中邢岐之地而居之設官制”

73) 조남호, 「권덕규의 단군 천부경 연구」, (선도문화 13, 2012). 92쪽

애류가 단군의 신화로 발굴한 인물인 왕조명은 농업과 가옥 개량, 왕해월은 조선술(造船術)로, 왕명지는 역술(曆術)로, 왕흘은 병기를 개량한 인물로 소개되었다.

74) 『조선사』 제 2절 壇代 四圍의 형세. 5쪽

마다 10월, 소도에 모여 굿(祭)하고 노래와 춤으로 놀며 신교의 한 갈래인 신선교가 있어 나중에 중국에까지 퍼졌다 하였다. 그는 정신사를 논하면서 유불도 삼도는 ‘대종(大衆)’에서 기원했음을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종교(宗教)가 아닌 삼도⁷⁵⁾ 중의 종도(衆道)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대변경에는 종도는 단군왕검의 도로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대종교(大衆敎)의 가르침으로 본 것이다.⁷⁶⁾ 단군조선의 임금인 전국을 통치하며 그 밑에 제장이 사무를 분장하며 농업을 크게 의복은 하늘 또는 태양을 상징하여 백색이었다. 성축과 피복, 도기, 서계를 담당한 신지의 직이 있었고 그가 지은 신지비사는 ‘조선문예의 시작’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왕명지(王明智)가 농역(農曆)을 만들고 왕자 부소(扶蘇)는 약을 준비하여 질병에서 백성을 구하였다 하였다.⁷⁷⁾

여러 나라가 임금의 아래 대가(大加), 대인(大人), 간(干), 신지(臣智)들이 있어 나라를 다스렸으며 법률과 도덕 사상이 일찍부터 열려 사람 죽인 자는 죽이며 흠친 자는 흠친 것을 12배 물렸는데 맥지에는 구실(세금)을 20에 1을 거둬들이니 뒤(단기 21세기 후) 한고(漢賈, 한나라 장사꾼)들의 흠치기로 인하여 반도 중부 예맥까지 금령이 무서워졌다고 하였다. 대륙조선에서는 화폐도 사용하였는데 북쪽 대륙 조선에는 자모전(子母錢)이 있었고 단기 12세기 왕문(王文)은 신지의 문학을 이었고 남쪽 삼한에도 문자가 있었다 하였다.

75) 『太白逸史』 神市本紀 “倭者 虛焉而本乎天 仙者 明焉而本乎地 倭者 健焉而本乎人也”

76) “大辯經曰 神市氏 以倭修戒 敎人祭天 所謂倭 從人之所自全하여 能通性以成眞也. 靑邱氏 以仙設法 敎人管境 所謂仙 從人之所自山 山産也 能知命以廣善也.

朝鮮氏 以倭建王 敎人責禍 所謂倭 從人之所自宗 能保精以濟美也”

77) 『조선사』 제 3절 단대의 제도, 6쪽.

7) 단군조선의 계승 국가, 부여

애류는 단군조선을 계승한 국가를 부여로 보았다.⁷⁸⁾ 『조선유기략』에는 당시 부여의 경계를 기술해 놓았는데 녹산(鹿山, 길림성)에 서울 하였다가 예맥 땅에 서울하면서 북쪽 대부분을 다스렸으며 당시 주변국은 남쪽으로 강북(압록강북), 하동(河東, 구려하, 요하동쪽)에 진번(眞蕃, 卒本), 구려(句麗), 양맥(梁貊. 烏列忽-요동성 근방의 종족), 소수맥(小水貊, 수암하(岫岩河)以西, 압록강 북쪽 지류인 혼강(渾江) 쪽에 사는 맥족)이 있고 강남, 악북(岳北, 부아악, 삼각산의 북쪽)에 낙랑(樂浪, 艮夷)의 20여 국이 일어나고 낙랑 동북쪽의 옥저는 뒤에 남북으로 나뉘고 남쪽에 부아악, 계립령(鷄立嶺, 태백산맥)이남에는 삼한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당시 사료의 부족함 속에도 부여에 대해 애류의 영역적 접근이 주목할 만하다.

IV. 맺음말

본고를 정리하면서 위에서 논한 애류의 상고 조선에 대한 인식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서두에서는 대한제국시기부터 한국사 간행과 내용을 살펴보고 일제 통감부시기와 조선총독부시기의 조선사 간행 방향성도 살펴보았다.

이성계의 조선건국 후 중흥기로 들어서면서 조선의 사학은 여러 갈래로 분열된다. 단군의 실존성과 정통성 계승문제에 대한 이견과 낙랑군과 삼한의 위치비정문제, 요동회복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제시되었다. 애류가 살았던 시기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이 조선총독부에 의해 일원화되어 1920년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조선교육령 과정에서 단군은 정식 조선사에서도 삭제되었으

78) 『조선유기략』 “단군조선을 지내어 북쪽 예맥조선 사람은 부여(風夷)라는 새 나라를 세우다.”

며 ‘배달’, ‘단(桓)웅’과 ‘4천년 역사’란 표현도 법적으로 표기가 금지되었다.⁷⁹⁾ 당연히 고토로서의 요동 회복 주장도 금기 사항으로 바뀌었다.⁸⁰⁾ 이러한 상황 속에 애류가 『조선유기(朝鮮留記)』와 『조선유기략(朝鮮留記略)』, 『조선사(朝鮮史)』 통해 조선인의 상고 조선역사인 ‘신시와 단군’의 역사를 정립하여 ‘환(桓)민족’의 정체성을 계속 강조하였다는 것과 ‘신시- 단군조선- 부여로 이어지는 역사계승’ 논리는 틀림없이 당시 조선총독부의 시의에 부적합한 내용임에 틀림없었다.

신시와 단군을 기원으로 한 조선사의 시원건국사관은 고려시대 일연, 이승휴, 이암, 조선 초기 권람, 이맥 그리고 중후기 허미수, 남구만, 이익과 이종휘, 김교헌을 거쳐 애류와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으로 계승되어 왔다. 즉 애류의 상고 조선사는 전통사학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다. 광복 후 한국사는 이러한 전통사학이 아닌 조선총독부 반도사학을 계승해 왔고 급기야 이로 인해 동북공정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이런 시기 애류의 ‘환(桓)민족의 주체 건국사관’과 ‘신시- 단군조선- 부여’로 계승되는 한국사의 시원건국사의 맥락은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주체적 전통 건국사관’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앞으로 애류의 역사와 사상에 대한 조명과 집중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본다.

79) 1928년 10월 경성지방법원문서 내용. 소년소녀들 대상 출판물에 “배달”, “단(桓)웅”, “무궁화”, “4천년” 등의 용어가 기재된 내용은 삭제되었고 출판불허되었다. (朝鮮出版警察月報 第2號/思潮 - 諺文 少年少女讀物の 傾向)

1930년 3월 2일자 조선일보 신문에 조선총독부 지안관련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배달’과 ‘삼일’이란 간판을 철거케 했다고 보도했다.

80) 1928년 만주의 옛 고토를 회복하자는 내용의 『한 빛(대광)』 제 2호가 출판불허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三國遺事』, 『游軒集』, 『標題音註東國史略』, 『新增東國輿地勝覽』, 『大東韻府群玉』, 『藥泉集』, 『海東異蹟』, 『修山集』, 『楓巖輯話』, 『晉書』, 『海東樂府』, 『冠巖全書』, 『應製詩註』, 『東事』, 『桓檀古記』

【단행본】

권덕규, 『조선유기』 (상문관, 1924)
 권덕규 저자(글) · 정재승 번역, 『조선유기략』 (우리역사연구재단, 2009)
 권덕규, 『朝鮮史(原名 :朝鮮留記)』 (정음사, 1945)
 김교헌, 『神檀實記』 (신문관, 1914)
 북애 저자 · 고동영 옮김, 『揆園史話』 (한뿌리, 2005)
 조성을, 『朝鮮後期史學史研究』 (경기도: 한울, 2004)

【논문】

김일권, 「17세기 단군 이해의 민족주의적 경향」 『宗教學研究 14』 (1995)
 김해금, 「권덕규 선생의 학문적 계보」 『애산학보 42』 (2016)
 김동환, 「단군을 배경으로 한 독립운동가 - 경상도,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 『仙道文化, 11』 (2011)
 노관범, 「한국 통사로 보는 ‘실학’의 지식사 시론」 『한국문화 0.88』 (2019)
 박결순, 「애류 권덕규의 '조선생각'과 근세사 인식론」 『애산학보』 (2016)
 박찬승, 「백두산의 '민족 영산'으로의 표상화」 『동아시아 문화연구 55』 (2013)
 송호정, 「1920년대 문화사학자의 민족 자각론과 한국상고사 인식」 『역사와 담론, 106』 (2013)
 신운용, 「대종교세력의 형성과 그 의미」 『한국민족운동사연구 0.84』 (2015)
 이현희, 「애류 권덕규 선생 연보」 『애산학보, 42』 (2016)
 ----, 「애류 · 한별 권덕규의 국어학적 업적」 『애산학보, 42』 (2016)
 ----, 「權憲奎의 생애와 그의 국어학적 업적에 대한 한 연구」 『규장각 41』 (2012)
 임재해, 「단군신화로 본 고조선 문화의 기원 재인식」, 『고조선단군학 19』 (2008)
 ----, 「신시본풀이'로 본 고조선문화의 형성과 흥산문화」, 『고조선단군학 20』 (2009)

----, 「고조선'조와 '전조선기'로 본 고조선의 역사적 실체 재인식」 『고조선단군학, 26』 (2012)
 정민지, 「權憲奎의 『朝鮮史』에 나타난 한국사 인식」 『국내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2)
 정주아, 「애류 권덕규의 문학 작품과 논설」 『애산학보, 42』 (2016)
 조남호, 「권덕규의 단군 천부경 연구」 『선도문화 13』 (2012)
 ----, 「대종교 계열 학자들의 영토 인식」 『선도문화 22』 (2017)
 ----, 「주시경과 제자들의 단군에 대한 이해」 『선도문화 19』 (2015)
 조항범, 「권덕규'의 어원 연구에 대하여」 『애산학보, 42』 (2016)
 최기영, 「권덕규의 생애와 저술」 『애산학보, 42』 (2016)
 최시한, 「권덕규 지음 「조강 물참」에 대하여」 『서강인문논총 0.54』 (2019)
 황재문, 「權憲奎와 한국 고전문학」 『애산학보 42』 (2016)
 허재영, 「애류 권덕규의 사상과 어문 운동」 『애산학보, 42』 (2016)